

●...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모든 종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 또다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김호운(소설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러한 패풍범 죄는 사회전반의 문제가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를 양육 가리지 않고 너무 버릇없이 귀염계만 키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인을 양산하는 것이 오늘날 가정교육의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와 각 가정은 인격을 함양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가정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김동순(동북 신경정신과 원장) 가족내에서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인 사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에게서만 모든 일의 원인을 양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살해동기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한다. 아직 밝혀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못하면서 지내오지 않았나 짐작된다. 불만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어느시점에 이르러 적개심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은연중 자식에 대한 강요를 일삼는 부모 또는 기성세대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 조성우(48, 회사원) 이번 존속살해 사건은 지난날 한국부모가 제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결과이다. 아버지는 가정윤리보다 돈에 치우쳐 부권부제가 되었고 어머니는 한푼이식의 '큰 인물' 되기만 강조하는 모성에 결집속에 존속살해는 일어났다고 본다.

●... 박성덕(주부) 아들에 의해서 인생의 종말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된 그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문영호(64, 한국운전봉사 연합회 회장) 패풍교수의 부친살해사건은 충격의 도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하는 사건이다.

이 소식에 잘못된 것이라든가 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아닌가. 우리 사회는 무너진 도덕 속에 상처를 때려 부딪고 있다. 교육과 문화적 여건이 물질문명에 이끌려 가는 과정에서 생긴 참사들이 분명하다. 건조한 우리의 문화의식이 아쉬울 뿐이다.

자비·사랑 함양 미달 종교가 제역할 해야

교수아들의 살인을 보고...교계의 반응

●... 문희호(명성여고 교장) 재산상속을 노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교수의 사건은 같은 교육자로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돈이든 무엇이든 된다는 사고와 부패된 효의식의 팽배가 빚어낸 일로 문제가 뒤에는 문제의 본질과 사회가 있다는 말을 또 한번 실감케 하는 계기였다.

●... 서건봉(57, 부산교육기술회 회장) 듣기도 말하기도 끔찍한 사건이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회의마저 느껴진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재산상속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 종교가 서로 다른데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도덕이름이 무너져 내린 사회의 한 단면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 박성덕(주부) 아들에 의해서 인생의 종말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된 그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문영호(64, 한국운전봉사 연합회 회장) 패풍교수의 부친살해사건은 충격의 도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하는 사건이다.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날로 흉악해지는 정신문화의 정화·선화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날로 흉악해지는 정신문화의 정화·선화해야 할 사명이 있다.

“부처님 도량서 뛰놀고 싶어요”

불교유치원 전국 2백50여곳... 놀이방만이라도 있었으면 서울시, 시설비 2천5백만원·매달 운영비 1백만원 지원

얼마전 서울 불광사 불광유치원 이신숙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난처해했다. 급근도 신학기 원생 접수를 받기 시작한 단하루만에 정원이 초과되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꼭 접수를 받아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교계는 학부모들이 불교유치원을 원하고 있으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불교계에는 전국적으로 1백 60여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비인가 불교유치원까지 합쳐도 2백50여개로 전국 유치원 8천여개에 비하면 3%에 불과하다.

특히 불교유치원은 지역별로 서울에 15개 정도여서 인구비율로 볼때 서울의 불교유치원 부족은 타지역에 비해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로 인해 불자자녀를 둔 부모들은 ‘올버저자식’으로 자녀들을

타종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때때로 가정의 화목을 깨는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전에 살고있는 보현심보살은 국교 3년생인 딸이 식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때 마다 곤욕을 치루곤 한다. 예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배운것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불교계는 유치원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새로 창건되는 사찰마다 유치원을 함께 건립하는 등 뒤늦게 어린이 포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통도사 서울포교당은 신도시에 창건되는 사찰마다 유치원을 설립, 12개의 유치원에서 원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원장 자용스님)은 지난 19일 유치원 건물을 준공하고 개원했다. 연화유치원은 이

본사서 말사주지교육 조계종 교무국장 회의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교무국장 회의가 지난 22일 총무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조계종교육원장 원산스님과 부장 항적스님등 교육원 임원진과 전국 20본사 교무국장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 교구 말사주지종무원수회를 본사가 주최하며 교재·교육의 기본을 낱자 등을 교육원이 주관해 열기로 하는 한편 교육내용은 교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강화를 삽입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사비(나)계 수계자부터는 대가사를 수하지 못하고 만의를 수하도록 하고 종단차원에서 가사분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승가대학 개원에 관해 교무국장스님들은 교육원의 개편논의에 일치적으로 동의했다.

신도단체협 사업안 확정

종단협안하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9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태고종 관음종등 19개 종단신도회 회장들은 이날 연합회 협의회로 바꾸고 95년 사업으로 4월1일부터 6개월간 시,도지부를 결성하기로 했다.

전주 운불련 창립 서울 대전 대구 등에 이어 열한번째로 전주지역에도 개인택시운전기사 불자회가 창립했다.

전주 운불련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전북불교회관에서 창립기법법회를 갖고 정법수행 및 포교의 서곡을 올렸다.

청교련 독서실 개관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관장 복해인)을 23일 개관했다.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은 지하층 지상 3층 연건평 2백50평 규모로 1층은 노인정, 2층 3층은 1백20석의 열람실로 꾸며졌다.

비구니종진연수 운문사서 조계종 비구니스님들의 연수회가 풍악사에서 운문사로 변경, 내달 17~19일 열린다.

비구니수행관 준공 중앙승가대학 비구니수행관(관장 본각스님) 준공기법법회가 지난 22일 월주스님, 원산스님, 승찬스님, 국외의인 이철씨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불광사 군불자 위문 불광사 거사암회(회장 최병훈)는 지난 12일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군 소재 호국 무선사에서 불자장병위문법회를 봉행했다.

포살참회 보살계 봉행 김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한근)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김해신안사 동리사에서 일타·고산·화엄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포살참회보살계’를 봉행했다.

천불사 관음석굴 낙성 양산 천불사(주지 도봉스님)는 지난 19일 스님, 신도, 지역단체장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불사 관음석굴 낙성식을 봉행했다.

도명스님 입적 전 월정사주지 도명스님이 지난 10일 예천 본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52세, 법랍 31세. 도명스님은 62년 고승스님들은 은사로 득도한데, 72년 보현사 주지를 거쳐 5·6·8대 중앙총회의원을 지냈고, 사회부장, 규장부장등을 역임했다.



사찰마다 어린이방등 유아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교계가 운영하는 햇놀이방.

29일 입제·내달 7일 자주화 대토론회등 3.29법난 1주 행사 다채

승가대학 학인회 세부계획 수립

3·29법난 및 4·10 승려대회 대회 1주년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국 승가대학 학인연합회(회장 지영스님)는 지난 20일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추진위원회 전체모임을 갖고, 행사 내용 및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오는29일 오후2시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입제선언을 시작

4월10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대법회를 봉행, 행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청화스님을 상임대표로, 지홍스님을 행사추진위원으로 하는 이번 대법회에서는 종단개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본 불교발전 방안제의를 위해 지난21일 부터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불교선농회 출범 22일 환경운동기초로

한국불교선농회(회장 장해명)는 지난 22일 대전 유성관 광호실에서 스님과 신도, 회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선농회는 대전 중앙본부를 비롯, 서울 부산 대구등 13개 지역본부에 1천3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농촌 환경 오염 개선과 우리 농산물 애용, 경로효친사상 회복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선농회는 농촌토양 살리기, 지역 특산물 및 무공해 식품 직거래 연결, 양축농가 미생물 균제 보급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구 자원주지연 발족

마하야나·동화사말사 80개사암

대구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소속 40여개 사암과 동화사 본말사 40여개 사암들이 연합한 대구광역시 자원주지연합회가 창립된다.

대구광역시 자원주지연합회는 28일 오후 3시와 6시에 프린스호텔 별관 5층 그로리움과 2층 대연회실에서 각각 창립총회와 창립법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로써 대구광역시 자원주지연합회에는 대구를 비롯 칠곡군,달성군의 80여개사암의에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 포교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0년간 망실 토지 되찾아 호암사, 정부문서자료 토대로

80여년간 미등기 상태로 망실됐던 사찰 토지가 한 스님의 노력끝에 되찾아졌음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해 7월 구로구 시흥동 소재 삼성산 호암사 주지로 부임한 원옥스님은 불사계획중 사찰관리토지 상당부분이 미등기로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 작년 9월 내부부장관앞으로 '미등기토지 보존등기 절차에 따른 대장정리 신청방법' 질의서를 보냈다.

내무부로부터 '전통사찰등록증' 소유자가 주소등록을 할 수

대구 자원주지연 발족

고령시암연합회(회장 지영스님)는 29일 오전 10시 육천사 대광장에서 '우순종조(기우제)·국태인안 기원 및 수륙대제'를 봉행한다.

이번 기우제에서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발원과 함께 기우제를 큰 열렬이 있다

3.29 법난, 4.10 승려대회 1주년 기념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중 명	월하, 서용
고 문	서운, 관음, 월산, 문성, 해암, 승찬, 원담, 운경, 고승, 비룡, 용담, 도천, 도건, 지중, 석주, 청하, 일타, 도원, 성수, 벽암, 수산, 정화, 월인, 송담, 화산, 진재, 지유 (무순)
지도위원	탄성, 녹원, 월주, 고산, 능가, 광덕, 지관, 이두, 지유, 벽파, 도문, 정일, 혜정, 범정, 보성, 대정, 범홍, 화일, 우룡, 월운, 도원, 해산, 무문, 원명, 천운, 근일, 무진장, 송산, 보경, 무비, 종진, 원산, 정각, 설경, 정대, 월단, 설조, 태운, 오현, 현호, 홍고, 지형, 지하, 원서, 법조, 현성, 범해, 해남, 지선, 정현, 지홍, 현해, 월성, 철웅, 범강, 무공, 정관, 지은, 도영, 종영, 현고, 현근, 재근, 지원, 정명, 무어, 고우, 덕민, 수진, 범하, 지명, 원우, 시현, 설송, 해장, 종래, 명상 (무순)
상임대표	정화
공동대표	도법, 해충, 수안, 성용, 정도, 범천, 각원, 정혜도량, 진불련, 재불련, 우리는 선우
행사 추진위원장	지홍
추진위원	종립, 광복, 세영, 무산, 원행, 부동, 각현, 무상, 덕상, 장국, 지은, 인행, 범등, 정우, 선봉, 성덕, 현소, 향공, 성타, 진현, 무작, 선용, 원명, 영담, 영관, 석호, 정우, 영배, 해경, 원행, 성오, 지은, 종원, 진만, 지현, 영조, 보선, 혜관, 종하, 진아, 대원, 동명, 일민, 화법, 성우, 명진, 현봉, 종광, 정인, 범성, 지만, 여연, 호민, 정휴, 장운, 성문, 현진, 건관, 지환, 일수, 성로, 정호, 성우, 만성, 범진, 종삼, 덕신, 범광, 정만, 정남, 홍관, 향적, 덕운, 정문, 원배, 성수, 화암, 종식, 종운, 태원, 금경, 선진, 재원, 범민, 보가, 성도, 무상, 전옥, 성문, 범산, 도입, 대각, 현강, 해근, 상목, 지은, 대진, 상우, 각문, 동욱, 종립, 성원, 도현, 동광, 현업, 원타, 도환, 현운, 수경, 동성, 도각, 장적, 주영, 범안, 오성, 도진, 혜담, 설봉, 해관, 탄공, 철오, 지암, 도현, 본원, 범일, 진우, 현기, 일문, 자성, 원명, 현담, 무어, 선광, 선법, 정산, 명성, 묘일, 지광, 지영, 일연, 계수, 성충, 성경, 묘순, 대우, 일범, 수현, 재운, 육문, 범음, 지은, 진성, 본각, 해주, 흥문, 혜조, 제법, 원담, 유곡, 홍승, 화문, 정아, 종호, 범운, 종선, 용담, 현공, 범상, 일감, 도은, 진득, 우석, 규원, 현진, 정담, 도륜, 대준, 묘준, 혜타, 천지, 월, 김상 (무순) 한상범, 이문옥, 박광서, 안동일, 이순규, 김재일, 남지성, 광상인
사무처장	각밀
실무 집행위원	●총무-지명, 혜경, 각원 ●기획-범안, 송목, 정암 ●홍보-현법, 오성, 금강 ●섭외-각산, 진웅, 이지 ●의전-하림, 덕문, 원운

행사 일정

- 3.29 입제선언, 오후 2시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 자료전시회(종단개혁 사진 만평전)
일시 :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및 조계사 경내
 - 종단개혁 비디오상영전
일시 :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및 조계사 경내
 -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일시 : 4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 참가단체: 선우도량, 실천불교전승승가회, 중앙승가대동문회, 동국대석림동문회,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동문동맹회, 중앙승가대학학생회, 동국대석림회,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재가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우리는 선우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행사추진위원회